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 : 1-17을 중심하여-

韓 重 植*

Ⅰ. 들어가는 말
Ⅱ. 본 말
1. 마태복음의 족보
2. 족보의 의미
3. 족보의 중요성
4. 마태복음 족보의 문제
가. 마태가 지니는 문제
나. 누가와 관련된 문제
5.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
Ⅲ. 맺는 말
Bibliography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Roman Catholic의 대표적인 성서 신학자 故 선종완 신부 같은 분도 족보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 (앞글 줄임) 성서 안에서 족보 같은걸 암만 읽어 봤자, 감명은 없거든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낳고, (가운데 글 줄임) 어떤 것은 싫증이 나서 읽기가 싫은 것도 있어요 (뒷글 줄임). [1]

우리들은 성서의 정경성 (canonicity)의 조건으로서 대략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성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졌어야 한다는 영감성이고, 둘째는, 성서가 사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사도성, 즉 성서는 사도가 직접 썼거나 아니면 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씌어졌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째는, 성서가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적인 호소

* 人文大學 副教授

1) 선종완, "카논의 정의," 성서와 함께 (서울 :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1987), 136, p.71. 우리는 위에서 인용한 글과 엇비슷한 증언과 푸념을 수없이 들을 수 있다. 三浦綾子著, 金燦國譯, 신약성서 입문 : 좁은 문을 향하여 (서울 : 三民社, 1978, 1988 중판), p.16 : "이 계보를 한자도 건너 뛰지 않고 읽는 분이 몇분이나 있을까? 하는 수 없이 읽었다." Fred M. Wood, "Live All the Days of Your Life," The Zondervan 1987 Pastors Annual, ed. T.T. Crabtree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86), p. 80: "as he droned on and on, the genealogical statistics became.. boring." Alexander Balmain Bruce,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ed. W. Robertson Nicoll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0), I, p. 61: "The genealogy may readily appear to us a most ungenial beginning of the Gospel. A dry list of names." 이 외에도 거의 모든 주석학자들이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력을 지녀야 한다는 감동성을 들고 있다.[2)]

그렇다면 아무리 읽어봤자 '감명이 없고', '지루하며', 또 어떤 것은 발음하기조차 힘든 이름들로 채워진 족보가 신약성서 정경의 첫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그것도 첫머리에 소개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본 논문에서 마태복음 저자가 왜 하필이면 족보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족보가 처음 독자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으며, 예수의 족보가 감동을 줄 소재(만약 조금이라도 있다면)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것을 직접 성서연구 및 설교에 활용할 수 있는 자극을 얻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본 말

1. 마태복음의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2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람을,*

---

2) A.M.Renwick, The Story of the Church (London : Inter-Varsity Press, 1971), pp. 37-38 ; 韓重楠, 基督教概論(숭전대학교 출판부, 1984), p.76 ; 基督教의 理解(서울 : 崇實大學校出版部, 1989), p.141.

* 2-5절과 6-11절 그리고 12-16절에는 6절상, 11절, 16절상에서 "낳았다"라고 번역된 말과 똑같은 동사 ἐγέννησεν (γεννάω 의 제1단순과거, 직설법, 능동태 3인칭 단수)이 예수의 출생에서 갑자기 ἐγεννήθη (γεννάω 의 제1단순과거, 직설법, 수동태 3인칭 단수)로 바뀔 때까지 줄곧 39번 반복된다. 번역자는 읽는데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룹이 매듭지어질 때에서만 이 동사를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Cf. Archibald Thomas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Nashville:Broadman Press, 1930), I, p.4.

4 람은 아미나답을, *
아미나답은 나손을, *
나손은 살몬을, *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
오벳은 이새를, *

6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읍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

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
아비야는 아사(공동번역 : 아삽) △를, *

8 아사(공동번역 : 아삽) △ 는 여호사밧을, *
여호사밧은 요람을, *
요람은 웃시야를, *

9 웃시야는 요담을, *
요담은 아하스를, *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

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
므낫세는 아몬○ (공동번역, 새번역 : 아모스)□을, *
아몬○(공동번역, 새번역 : 아모스□)은 요시야를, *

△ 대한성서공회 발행, 공동번역성서(외경포함)(서울 : 대한성서공회, 1977, 1983[20]), 신약 p.1. 아사가 옳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믿을만한 사본들에는 아삽으로 보존되어 있다. 본문에 아사 대신 아삽을 채택한 이유와, 아사를 고집하는 Lagrange의 입장을 설명하는 말은 Kurt Aland, Matthew Black, Carlo M.Martini, Bruce M.Metzger and Allen Wikgren, edd., The Greek New Testament(London, New York:United Bible Societies, 1975[3]), p.1 ; Bruce M.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London, New York : United Bible Societies, 1971[3]), p.1 을 보라.

○ 대한성서공회 발행, 관주성경전서(개역 한글판)(서울 : 대한성서공회, 1986[2]), 신약 p.1. 아몬이 옳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7－8절에서처럼 고대의 믿을만한 사본들에는 아모스로 보존되어 있다. Aland et. al., op.cit., p.1; Metzger, op. cit., p.2를 보라.

□ 대한성서공회, 신약전서(새번역)(서울 : 대한성서공회, 1973), p.1.

11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읍니다.*

12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

13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

14 아소르는 사독을, *
사독은 아킴을, *
아킴은 엘리웃을, *

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
엘르아살은 맛단을, *
맛단은 야곱을, *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하는
예수가 나셨읍니다. ☆

17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열 네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열 네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열 네대입니다. ◇

2. 족보의 의미

히브리어의 "족보"(תולדות)란 이름씨 낱말은 구약 느헤미야 7:5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

☆ 지금까지 쓰인 ἐγέννησεν 과는 달리 ἐξ ἧς (마리아를 받는 여성 관계 대명사, 속격) ἐγεννήθη 가 쓰였다. 여기서 동정녀 탄생의 의도를 읽는 학자들이 많다. See Robertson, op. cit., p. 5; B.H. Throckmorton, Jr., "Genealogy (Christ),"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ed. G.A. Buttrick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II, p. 366; J. Gresham Machen, The Virgin Birth of Christ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30), pp. 244f., 263-8.

◇ 10절의 아모스를 아몬으로 바꾼 것 외에는, 헬라어 원문의 어순(예컨대, 1절의 다윗, 아브라함) 이나 뜻을 비교적 충실하게 살린 신약전서(새번역), p.1을 옮겼다.

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는데서 סֵפֶר הַיִּחַשׂ (譜系)란 표현으로 단 한번 밖에는 쓰이지 않았다. 움직씨 יָחַשׂ 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누구의 이름을 족보에 등재하다"라는 뜻의 hithpael 인 הִתְיַחֵשׂ 로 항상 쓰였다. 신약에서는 헬라어의 "족보"(γενεαλογία) 란 낱말이 디모데 전서 1:4 와 디도서 3:9 에서 "族譜"란 말로 번역되어 쓰였다.[3]

같은 개념의 히브리어 "계보"(תּוֹלְדוֹת) 란 낱말이 창세기 5:1 에서 סֵפֶר תּוֹלְדוֹת, MT; Αὕτη ἡ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LXX (系譜)란 표현으로 쓰였다. 신약에서는 "출생" 혹은 "시작"을 뜻하는 γένεσις 란 낱말이 마태복음 1:1 에서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개역 : 世系 ; 새번역 : 계보 ; 공동번역 : 족보)라는 표현으로 쓰였고, Delitzsch 는 그의 히브리어 신약성서에서 이를 סֵפֶר תּוֹלְדוֹת 으로 번역했다.[4] 이처럼 성서에서 말하는 "족보"란 세속적인 의미에 있어서와 같이 개인 혹은 개인들의 조상(들) 혹은 후손 (들)을 말해 주는 명단(名單)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5]

3. 족보의 중요성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족보를 갖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족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6] 그러기에 유대인들처럼 족보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존하려고 노력한 민족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로 가족의 주거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지파와 가족에 따라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등록된 사람의 수를 따라 이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고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라. 이렇게 등록된 사람의 수에 따라 각기 유산을 나누어 주어라. 그런데 땅을 나누어 줄 때에는 선조 때로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을 따라 나

3) Harold W. Hoehner, "Genealogy," Wycliffe Bible Encyclopedia. edd. Charles F. Pfeiffer, Howard F. Vos and John Rea (Chicago: Moody Press, 1975), I. p. 662.

4) Delitzsch's Hebrew New Testament (London: Trinitarian Bible Society, 1960) p. 1.

5) Hoehner, op. cit., p. 662.

6) 구약의 수많은 족보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의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 1세기서 살았던 역사가 Josephus (C.Apion 1:7)는 이런 기록을 얼마나 세심하게 보존하는지 주의깊게 기술한다. 한가지 예로써 그 의미를 잘 설명할 줄 안다. 당국은 제사장의 약혼녀가 제사장의 아내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보기 위하여 어머니 4대를 통하여 정절을 본다 (Kid. 4:4=76a). See E. Earle Ellis, The Gospel of Luke (London: Oliphants, 1974 rev.), p. 93; cf. W.A.L. Elmslie, "The First and Second Books of Chronicles," The Interpreter's Bible, ed. George Arthur Buttrick (Nashville: Abingdon Press, 1954), III, p. 349; F.F. Bruc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New Bible Dictionary, ed. J.D. Douglas (Grand Rapids: Eerdmans, 1962), p. 459.

누어 주되 주사위를 던져서 그 결과를 따라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유산을 나누어 주어라"(민 26:52-56 , 공동번역, 비교 민 33:54).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거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에 상주하게 되면 그는 "도망한 자"(삿 12:4)로 불리울 수 있었다. 특수한 상황 아래서 토지를 양도하려면 족보의 정확한 지식이 필요했다(룻 3:9, 12, 13; 14:1-10).[7] 특히 레위의 족보는 중요하여 포로 이후의 책들에까지 확대되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레위의 제사장직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포로기 간중, 포로로 잡혀간 이후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8]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제사장의 직분을 주장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자손됨을 증명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렇지 못하면 그를 제사장직에서 제외시켰다(스 2:62).[9] 아론의 족보와 더불어, 유다의 족보 또한 중요했다. 왜냐하면 이 지파에서 메시야가 나올 것이고(창 49:9-10), 보다 자세히 말하면 그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삼하 7:12-16; 시 89:3-4, 28-30, 32-37).[10]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지파와 가문의 구별, 토지의 소유권, 지위와 권력등이 모두 족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들은 수많은 소란과 전란중에도 족보를 고이 간직하였다. 특히 포로생활 이후에 족보는 민족의 동질성을 확립하고 보존하는데 아주 중요하였다. 이것은 국가 위기의 기간을 통하여도 국가가 계속 보존된 것을 보여준다.[11]

4. 마태복음 족보의 문제

가. 마태가 지니는 문제

마태가 추적하는 계보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생략에서 오는 문제이다. 족보는 라합이 다윗의 증-증조모(great-grandmother : 보아스-오벳-이새-다윗)로 소개한다. 이것은 룻기 4:21, 22과 일치한다. 그러나 라합은 다윗이 태어나기 400여년 전,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365년 전에 살았었다. 언뜻 보기에 이 족보는 365년 동안의 모든 세대를 포함하지 않는듯하며, 많은 학자들이 그러한 결론을 내린다.[12]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지언정 조금 깊이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못한다. 구약 인물들이 우리들 보다 훨씬 장수했던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이 문제는 쉽

7) William Hendriksen,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3), p. 106.
8) Hoehner op. cit., p. 663.
9) Hendriksen, op. cit., p. 106.
10) Hoehner, op. cit., p. 663; cf. Hendriksen, op. cit., p. 106.
11) Hoehner, op. cit., p. 663; R.A. Bowman, "Genealogy,"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ed. George Arthur Buttrick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II, pp. 363-7
12) 이와 비슷한 문제를 Bruce, op. cit., p.64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게 풀릴 것이다. Matthew Poole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답한다:

> (앞글 줄임) 이처럼 살몬으로부터 다윗까지가 365년이다.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가 각각 100년 혹은 그 이상 살았다고 인정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만일 우리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연령과 기력을 고려할 때, 이것을 인정하는데는 불합리한 점이 없다. 많은 여행과 전쟁을 겪은 모세도 120년을 살았다(신 34:7). (가운데글 줄임) 만일 우리가 이 네 사람이 모세가 산만큼 살았다고 인정하면, 저들은 480년을 살았을 것이고, 각 사람이 저들의 부모와 15-6년씩 함께 산 것을 감안하여도 저들이 산 기간을 365년으로 잡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당시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도록 했을 것을 가정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뒷글줄임).[13]

생략에서 유래되는 보다 분명하고 보다 큰 문제는 족보의 두번째 그룹의 요람과 웃시야 사이에서 세 왕의 이름이 생략된 것이다. 역대상 3:11, 12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1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12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12절의 아사랴는 역대하 26:1과 27:2에서 웃시야란 이름으로 쓰이고; 열왕기하 15장에선, 같은 장임에도 어떤때는 웃시야(13,30,32절등)로, 또 어떤때는 아사랴(17,23절)로 쓰이는 사실에서 웃시야와 아사랴는 이명동인(異名同人)인 것이 확인되면[14], 마태복음 족보의 요람과 웃시야 사이에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15]

이 생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실수로(by inadvertence) 인한 것인가,[16] 아니면 고의로(by intention) 인한 것인가,[17]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이를 어떻게 정당화

13) Matthew Poole, A Commentary on the Holy Bible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685, 1969 rep.), III, pp. 2,3.

14) See P.C. Barker, "I Chronicles," The Pulpit Commentary, ed. H.D.M. Spence (Grand Rapids: Eerdmans, 1950), VI, p. 33; Poole, op. cit., pp. 3,4.

15) H. Schumacher, "The Omission of the Three Kings in St. Matthew's Genealogy (Mt. 1, 8)," Homiletic and Pastoral Review, XXII (1922), pp. 1194-1203.

16) Cf. Wm. F. Albright and C.S. Mann, Matthew. edd. W.F. Albright and David Noel Freedman (Garden City, N.Y.: Doubleday & Co., 1982), p. 4; Eduard Schweizer,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6), p.7.

17) Johann Albrecht Bengel, Gnomon Novi Testamenti. Bengel's New Testament Commentary, trs. Charlton T. Lewis and Marvin R. Vincent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1), I, p. 52.

할 것인가? Jerome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며, 의도적인 생략의 이유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족보의 두번째 그룹에서 14대(tessera-decade)[18]를 만들기 원하는 것이던가,[19] 아니면 기억하기 쉬운 고안(memoria technica)[20]으로 14대를 만든다는 것이고; 둘째는 왕들이 신권정치의 부정(theocratic illegality)의 낙인을 모면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21]

이렇다고 해도 다른 세 사람이 아니고 왜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를 생략했을까? 이것은 상상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Ebrard, Alford등에 따르면, 이 세 왕들은 다윗의 왕조를 멸하려던[22] 이스라엘 아합왕의 딸 아달랴의 자손들이기에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즉, 요람은 아달랴와 결혼하므로 그의 종족을 3, 4대까지 더럽혔다고 취급되는 것이다.[23] 아하샤는 아달랴에게서 요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대하 21:6). 아하샤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수중에서 단지 꼭두각시에 불과했었다. 아달랴의 손자 요아스는 왕의 사위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남아 있는 한에서만 왕이란 칭호를 가질 수 있었다. 여호야다가 죽고난 후,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궁의 영향 아래 완전히 굴복하고 말았다. 왕들의 묘소에 묻힌 것은 요아스가 아니라 여호야다라는 사실은 특기할만 하다(대하 24:16). 아달랴의 증손자 아마샤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이 치셨다.[24] 열왕기상 21:21에서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저주하고 뿌리뽑겠다고 위협하신 대로 저들은 뿌리째 뽑혀버린 것이었다.[25] 이처럼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들의 이름을 빼버렸으니, 이는 이미 우리가 본대로, 저희가 메시야의 족보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종교를 폐지한 아합의 집과 관련되어 유다의 왕위를 멸하려 했고, 메시야의 계통을 절단하려한 아달랴와 직접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태가 요람이 웃시야를 "낳았다"고 했을때 이 말은 직접적인 조상 아버지가 아니라 선조라는 뜻으로 썼음이 분명하다.[26]

---

18) Metzger, op. cit., p. 2.

19) Ralph Earle, "Matthew," Beacon Bible Commentary (Kansas City, MO: Beacon Hill Press, 1964), VI, p. 29: "The only reason, apparently, that can be assigned for this is that Matthew wished to preserve his systematic arrangement of the genealogy into three groups of fourteen each." 김득중, 마태복음(서울 : 성서교재 간행사, 1987), p. 41; John Peter Lange,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tr. & ed. Philip Schaff (Grand Rapids: Zondervan, 1980), VIII, p. 48.

20) A. Lukyn Williams, "St. Matthew," The Pulpit Commentary, edd. H.D.M. Spence and Joseph S. Exell (Grand Rapids: Eerdmans, 1950), XV, p. 5.

21) Bruce, op. cit., p. 63.

22) Cf.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n. d.), p. 4.

23) See Lange, op. cit., p. 49; Bengel, op. cit., p. 53.

24) Lange, op. cit., p. 49.

25) Poole, op. cit., p. 3.

26) Cf. Alan H. M'Neile,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London: Macmillan & Co., 1915), p. 4.

11절의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읍니다"라는 구절 또한 생략의 문제가 있다.[27] 역대상 3:15, 16에 따르면,

15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세째 시드기야와
네째 살룸이요.

16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라고 되어있다. 여기에서도 여호야김이 생략됐는데, 그 이유는 이것도 족보 두번째 그룹을 14대로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본다.[28]

여호아하스가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은 것은 분명하다(왕하 23:31; 대하 36:1). 유대인들중에 이름을 둘씩 가지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만일 요시야의 아들들이 모두 이름 둘씩을 갖지 않았다면, 그의 맏아들 여호아하스가 역대상 3:15에서 요하난이라 불리운 사람과 동일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는 어쩌면 백성들에 의하여 왕으로 옹립되었는데 그는 석달 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요시야를 살해한 바로느고에 의하여 폐위 당했다. 바로느고는 요시야의 둘째아들 여호야김, 혹은 엘리아김[29]을 대신 왕으로 세웠다. 그는 11년 동안 다스렸다(대하 36:5). 바벨론왕이 그를 폐위시키고 여고냐 혹은 고냐라 불리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다. 그는 석달 열흘 왕노릇하고(대하 36:9), 바벨론으로 끌려 갔다. 바벨론왕은 마타니아라고 불리운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 그는 11년동안 다스린 후(대하36:11) 온 유대인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 우리는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요시야의 네째아들 살룸이 다스렸는지 어떤지는 알길이 없으나 예레미야 22:11에 보면 그가 다스렸던 것 같다.[30]

어떤이는 여호야김이 족보에서 빠진 것은 그가 바로느고에 의하여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에게 세금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풀이하는 이도 있다(왕하 23:34, 35)![31]

둘째는, 이 족보에 나타나는 이름의 철자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이다. 우리가 아사-아삽, 아몬-아모스 같은 것은 이미 보았고, 헬라어의 무성음(無聲音) 때문에 히브리어를 옮길 때

27) Albright and Mann, op. cit., p. 4.

28) Bruce, op. cit., p.64. 이것은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보겠다.

29) Ibid.

30) 어떤이들은 여호아하스가 폐위될때 그가 대신 왕위에 올랐다고 보지만 우리들은 확실히 알 길이 없다. Poole, op. cit., pp.3,4.

31) 윗트니스 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서울: 한국복음서원, 1988), p.53.

발생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표기상의 차이로 철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그리 큰 문제로 보아질 수 없다. 마태복음 족보의 이름들이 대체로 역대상 1-3 장과 룻기 4장의 LXX를 반영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는 마태복음 저자가 LXX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실하다.[32] 또 스룹바벨 이후의 이름들은 구약에서 족보로 기록된 사적을 찾아볼 수 없어 저자가 비성서적자료(non-biblical source), 어쩌면 가계(家系)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cf. Josephus, Vita i.6).[33]

이는 MT와 LXX를 비교해 보면 이름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그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하는데 W.Hendriksen의 도표가 도움이 된다.[34]

첫번째 열 네 대

	마태복음	역 대 상	참 고 성 구
1. 아브라함	1 : 1, 2	1 : 27	창 11:26
2. 이삭	1 : 2	1 : 28, 34	창 21:1-5
3. 야곱	1 : 2	1 : 34; 2 : 1	창 25:26
4. 유다와 그의 형제들	1 : 2	2 : 1, 2	창 29:31-35; 30:1-24; 35: 16-18; 49; 출 1:1-6
5. 베레스와 세라	1 : 3	2 : 4	창 38:24-30; 룻 4:18
6. 헤스론	1 : 3	2 : 5	창 46:12; 민 26:21; 룻 4:18
7. 람	1 : 3	2 : 9, 25	룻 4:19
8. 아미나답	1 : 4	2 : 10	룻 4:19
9. 나손	1 : 4	2 : 10	룻 4:20
10. 살몬	1 : 4	2 : 11	룻 4:20
11. 보아스	1 : 5	2 : 11	룻 4:13,21
12. 오벳	1 : 5	2 : 12	룻 4:21
13. 이새	1 : 5	2 : 12	룻 4:22
14. 다윗왕	1 : 1, 6	2 : 15	룻 4:22; 삼상 13:11-13

32) Willoughby C. Alle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 Matthew (Edinburgh: T. & T. Clark, 1977[3]), p. 5.

33) David Hill, The Gospel of Matthew (London: Oliphants, 1972), p. 74.

34) Hendriksen, op. cit., pp. 111, 112.

두번째 열 네 대

	마태복음	역 대 상	참 고 성 구
1. 솔로몬	1 : 6	3 : 5	삼하 12:24
2. 르호보암	1 : 7	3 : 10	왕상 11:43
3. 아비야	1 : 7	3 : 10	왕상 14:31
4. 아사	1 : 7	3 : 10	왕상 15:8
5. 여호사밧	1 : 8	3 : 10	왕상 15:24
6. 요람	1 : 8	3 : 11	왕상 22:50
7. 웃시야	1 : 8	3 : 12	왕하 14:21;15:1
8. 요담	1 : 9	3 : 12	왕하 15:32
9. 아하스	1 : 9	3 : 12	왕하 16:1
10. 히스기야	1 : 9	3 : 12	왕하 18:1
11. 므낫세	1 : 10	3 : 13	왕하 20:21;21:1
12. 아몬	1 : 10	3 : 14	왕하 21:18,19
13. 요시야	1 : 10	3 : 14	왕하 21:24;22:1
14. 여고냐와 그의형제들	1 : 11	3 : 16	왕하 24:6,8,12; 렘 22:30

세번째 열 네 대

	마태복음	역 대 상	참 고 성 구
1. 여고냐(반복됨)	1 : 12	3 : 17	왕하 25:27-30
2. 스알디엘	1 : 12	3 : 17	스 3:2,8;5:2; 느 12:1;학1:1, 12,14;2:2-4,20-23
3. 스룹바벨	1 : 12	3 : 19	스 3:2,8;5:2; 느 12:1; 학1:1, 12,14;2:2-4,20-23; 슥 4:6-10
4. 아비훗	1 : 13		
5. 엘리아김	1 : 13		
6. 아소르	1 : 13		
7. 사독	1 : 14		
8. 아킴	1 : 14		
9. 엘리웃	1 : 14		
10. 엘르아살	1 : 15		
11. 맛단	1 : 15		

	마 태 복 음	역 대 상	참 고 성 구
12. 야곱	1 : 15		
13. 마리아의 남편 요셉	1 : 16		마 1:18-25;2:13-15; 눅 2:4,16,33,48
14. 예수 그리스도	1 : 16		

세째는, 위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여고냐를 두번째 열네 대에서 사용하고, 세번째 열네 대에서 다시 사용하므로 14-14-14대를 만드는데서 야기되는 문제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번째 그룹은 13대 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35]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가설들이 제언되었다. Lange는 마리아를 요셉과 구별하여 다른 한 대로 계산하여 14대로 보지만[36] 이는 부계 족보에 모계 족보가 삽입되어 조화롭지 못하다. 어떤 이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여 두 대로 보아 14대로 계산하고 있으나[37] 이것 역시 무리이다. Hendriksen은 여고냐의 아주 대조적인 두 경험에서 암시를 얻어 밝은 면의 여고냐와 어두운 면의 여고냐로 구분하여 여고냐를 두번 헤아리지만[38] 이 해석도 마음에 썩 내키는 것이 못된다.

여고냐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의견은, 이는 역시 여고냐라고 불리웠던 여호야김이고, 12절에 언급된 여고냐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해석이다.[39] 여호야김(608-597)과 3개월의 왕위를 누린 후에 사로잡혀간 그의 아들 여호야긴(597)이 한 인물로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어쩌면 두 사람이 모두 희랍어 성서에서 여호야김으로 불리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40]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여고냐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과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렘 27:20;왕하 24:6, 15) 이런 혼동이 오게 됐을 것이란 해석이다.[41]

마태복음 저자에게 있어서 14-14-14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3대를 14대로 실수할 수는 없었다.[42] 그렇다면 이 족보의 어려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 것인가? 위에서

35) Georg Strecker, Der Weg der Gerechtigkeit: Untersuchung zur Theologie des Matthä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1³), p. 38, n.3: "Die Differenz zwischen der Zählung in v. 17 und der Aufstellung der Genealogie (zweimal 14, einmal 13 Generation) dürfte vormatthäisch sein." Albright and Mann, op. cit., p. 4.

36) Lange, op. cit., p. 40.

37) See Robert H. Gundry, Matthew: A Commentary on His Literary and Theological Art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2), p. 19.

38) Hendriksen, op. cit. pp. 125, 126.

39) Poole, op. cit., p. 4.

40) Schweizer, op. cit,, p. 7; Cf. Lewis Matthew Sweet,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aedia, ed. James Orr (Grand Rapids: Eerdmans, 1955), II, p. 1196.

41) John Calvin,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edd.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tr. A.W. Morris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72), I. p. 60.

42) Lange, op. cit., p. 49.

설명한 것에 근거하여 Morrison은 "여고냐 I 세" 와 "여고냐 II세"로 구분하여,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솔로몬부터 여고냐 I 세까지 14대, 여고냐 II세로부터 예수까지 14대로 이해한다.[43] 이 해석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지닌다. 먼저, 성서에 보면 여고냐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불려진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들면, 신약시대에 여덟명의 헤롯이 모두 헤롯으로 불리웠다 : 헤롯대왕(Herod the Great, 마 2:1); 헤롯빌립 I 세(Herod Philip I, 마 14:3); 헤롯 아켈라오(Herod Archelaus, 마 2:22): 헤롯 안디바(Herod Antipas, 눅 3:1); 헤롯 빌립 II세(Herod Philip II, 눅 3:1); 헤롯 아그립바 I 세(Herod Agrippa I, 행 12:1); 헤롯 아그립바 II세(Herod Agrippa II, 행 25:13); 그리고 칼시스왕 헤롯(Herod King of Chalcis)이다.[44] 그러나 족보자체에서 보면, 지금까지 앞에 나온 모든 예에서, 2절의 이삭에서부터 10, 11절의 요시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름은 동일 인물의 이름이 두번씩 언급되었고, 먼저 나오는 이름은 아들로서, 나중에 나오는 이름은 아버지로서[45] 언급되는 사실은 이 해석을 약화시킨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조화시키려는데 만족한 대안이 없드시[46] 성서 본문을 손질하기 전에는 만족한 풀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세번째 그룹의 14대가 13대 밖에 되지 않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Eduard Schweizer는 첫째와 마지막을 포함하는 고대의 계산 방식을 따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마지막왕 요시야까지 14대, 포로로 잡혀간 후 첫째왕 여호야김으로부터 예수까지를 14대로 계산한다.[47]

나. 누가와 관련된 문제

누가복음 족보와 관련된 문제는 마태와 누가 두 족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서 비롯된다. N. Hillyer는 마태복음 1:1-17의 족보와 누가복음 3:23-38의 족보 사이의 복합적인 문제

43) W. Sunderland Lewis and Henry M. Booth, The Preacher's Complete Homiletic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p. 7.

44) Chas. J. Thynne & Jarvi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London: Chas. J. Thynne & Jarvis, Ltd., n. d.), p. 696.

45) Hendirksen, op. cit., p. 125, n. 130.

46) See infra.

47) Schweizer, op. cit., p. 8: "Allerdings weist der Stammbaum von Abraham bis David (inkl. Abraham) 14 Glieder auf, von dort bis Jojakim ebenfalls, dann aber bis zu Jesus, nur 13. Da aber nach antiker Weise immer der erste und der letzte mitgezählt werden, muß man wahrscheinlich verstehen: Von Abraham bis David 14, von David (der nochmals gezählt wird) bis zum letzten freien König Josia 14; vom ersten in der Gefangenschaft, Jojakim, bis Jesus 14." Cf. Bengel, op. cit., p. 59; Robert Jamieson, A.R. Fausset and David Brown, A Commentary Critical, Experimental and Practical on the Old and New Testaments (Grand Rapids: Zondervan, 1948), V. p. 2.

열가지를 열거하고 이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한 시도들을 소개한다.[48]

1.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때까지, 마태는 유다의 왕통을 통하여 혈통을 추적하는 반면, 누가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하여 혈통을 추적한다.

2. 두 명단은 스룹바벨과 스알디엘에서 다시 만난다.

3. 스알디엘 이후로, 두 명단은 요셉에게서 두 혈통이 다시 만날때까지 다를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로 이루어졌다.

4. 이름의 수는 솔로몬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마태복음은 14, 누가복음(나단부터 네리까지)은 20;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예수까지 마태복음은 13이름, 누가복음은 21 이름을 담고 있다.

5. 마태의 족보에는 네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다.[49]

6. 마태복음은 14대씩 3그룹의 이름을 가진다.

7. 마태복음은 하향식(descending order) 족보인 반면 누가복음은 상향식(ascending order) 족보이다.[50]

8.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이전의 이름들을 생략한다.

9. 마태복음은 "A는 B를 낳고"라는 관용구를 쓰며; 누가복음은 τοῦ +속격을 쓴다.

10. 철자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51]

지금까지 두 족보의 차이점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세가지 가설이 제의되었다.

1. 두 족보 모두 요셉의 것이지만, 마태는 육체적인 조상(biological ancestry)을, 누가는 호적상의 조상(legal ancestry)을 추적한다. A.D. 220년경에 활약했던 Julius Africanus가 Aristides에게 보낸 서신(이것의 상당 부분이 Eusebius의 Historia Ecclesiastica

48) N. Hillyer, "The Genealogies of Jesus Christ,"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ed. Colin Brown (Grand Rapids: Zondervan, 1978), III, pp. 653-660.
49) See infra.
50) Hendriksen, op. cit., p. 106.
51) See supra.

1.7에 보존되어 있음)[52]에서 논의된 수혼(嫂婚, levirate marriage)이 상이한 점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솔로몬의 후손인 요셉의 할아버지 맛단(마 1:15)이 에스타(Estha)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야곱을 낳는다. 맛단이 죽자 과부 에스타는 누가복음 족보에 나오는 나단의 후손인 요셉의 할아버지 멜기(눅 3:24)와 재혼하여 헬리를 낳는다. 그렇다면 야곱과 헬리는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는 다른 형제였다. 헬리가 자식이 없이 죽자, 야곱이 Levirate Marriage의 전통을 따라 그의 형제의 이름과 대를 잇기 위하여 요셉을 낳는다. 이처럼 요셉은 육체적으로는 야곱의 아들이고 호적상으로는 헬리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발상이지만 믿기 어려운 가설이다.[53]

2. Brooke F. Westcott, James Moffatt, Vincent Taylor 등 현대의 학자들은 앞의 가설을 역으로 풀이한다 : 마태는 호적상의 승계를, 누가는 육체상의 승계를 잇는다고 말한다. 마태는 합법적인 왕통 계승선을 스룹바벨과 요셉 사이의 후손이 "비밀의 왕손"(secret royal line)이 되게 하는 반면, 누가는 혈통의 관계를 마련한다. 마태의 족보 어느 부분에선 egennēsen이 낳기 보다는 입양을 뜻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예레미야 22:24-30에서 여고냐는 아들을 갖지 못할 것으로 저주를 받아 나단을 통한 다윗의 후손인 네리의 실제의 아들인 스알디엘을 입양했다. 스룹바벨 이후로 마태는 후사가 없는 야곱이 여고냐가 한 것처럼 헬리의 아들 요셉을 입양할 때까지 비밀의 왕통을 따랐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처음의 가설보다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54]

3. A.D. 1490년경에 활약했던 Annius of Viterbo와 M. Luther가 제언한 가설로서, 마태는 요셉의 조상을, 누가는 마리아의 조상을 말해 준다고 보는 가설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헬리(눅 3:23)는 마리아의 실제의 아버지이고, 23절에서 요셉은 헬리의 사위이든가, 아니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로 상상이 되겠지만 사실은 헬리의 손자로 해석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55] 유대인들은 모계의 조상을 추적하는 관습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를 위하여 그런 기록을 보

52) Oscar Cullmann, The Christology of the New Testament. trs. Shirley C. Guthrie and Charles A.M. Hall (London: SCM Press, 1963²), p. 128. n. 3; Throckmorton, op. cit., p. 366.

53) 이 가설에 대한 비판은 B.W. Bacon이 "Genealogy of Jesus Christ,"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ed. James Hastings (Edinburgh: T. & T. Clark, 1963)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 I. Howard Marshall, Commentary on Luke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78), p.158; E.L. Abel, "The Genealogies of Jesus ΟΧΡΙΣΤΟΣ," NTS, 20 (1973-4), p.203, n.9.

54) Hillyer, op. cit., p.655; Abel, op. cit., p.203에서 이 가설의 문제를 지적한다.

55) Marshall, op. cit., p. 158. Cf. Cullman, op. cit., p. 128.

존하였을 리가 없다.[56]

Marshall D. Johnson이 생각하드시 위의 어떤 가설도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 사이의 상이점을 조화시키는데 만족을 주지 못한다.[57] 이 가설들이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들이 만족할 만한 설명을 찾지 못한다고 이 족보들을 단순한 문학적인 구성(literary construction)으로 보는것[58] 도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솔한 짓이다.[59] 마태와 누가가 상이한 족보를 사용하는 것은 저들 나름대로의 목적에 부합시키려고, 특수하게 보존된 자료들을, 특이하게 전하여 준다고 여겨진다.

5.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

마태복음 족보에서 언뜻 눈에 띄는 특징은 첫째로 다윗이 뚜렷하게 부각되었다는 것이다.[60] 족보의 원문은 개역성서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로 되어 있다. 즉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61]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A가 B를 낳고 B가 C를 낳고"에서처럼, 1절의 아브라함과 2절의 아브라함을 단절없이 연결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순서를 바꾸어 놓았다고 보는 견해가 없지 않지만,[62] 마태복음의 신학과 족보의 구조를 살피면 다윗을 부각시키려는 저자의 고의적인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 족보에서 첫번째 14대가 다윗으로 끝나는가 하면 두번째 14대는 다윗으로 시작한다. 이 족보 안에 아브라함은 세번(1,2,17절) 밖에 언급되지 않는 반면, 다윗은 다섯번($1,6^2$, 17^2절)이나 언급된다.[63]

마태도 누가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단순한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16절에서 암시되었고, 마태복음 1:18~25에서 기술되는 동정녀 탄생, 혹은 성령잉태의 이야기를 통하여 드러내듯[64]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려는 신학적인 의도를 담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태에게 있어서는 2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에게 있어서 1차적인 것은, 예수는 "다윗의 자

56) Abel, op. cit., p. 203; Hillyer, op. cit., p. 655.
57) Marshall D. Johnson, The Purpose of the Biblical Genealog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etting of the Genealogies of Jes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p. 145.
58) Ibid., p. 230.
59) Albright and Mann, op. cit., p. 6.
60) See Gundry, op. cit., p. 13. Gundry는 Davidic Christology (pp. 13, 18)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61) Poole, op. cit., p. 2; A.C. Gaebelein, The Annotated Bible: The Holy Scriptures Analysed and Annotated (Glasgow: Prickering & Inglis, 1931), p. 14. Cf. Jack Dean Kingsbury, Matthew: Structure, Christology, Kingdo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p. 100.
62) Cf. Bengel, op. cit., p. 51.
63) Cf. 김득중, op.cit., p.42.
64) Cf. Machen, op. cit., pp. 244f., 263-8.

손 요셉"의 아들이므로,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마태가 이처럼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것은 누가가 그의 족보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하는 것과 아주 대조를 이룬다.[65] 마태는 예수의 족보를 예수의 탄생과 관련시켜 예수가 인간적으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는데 반하여[66] 누가는 예수의 족보(눅 3:23 ~ 38)를 탄생 이야기가 아닌 세례 받으심(눅 3:21 ~22)과 시험받으심(눅 4:1 ~ 13)에 관련시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왜 예수의 족보를 하나님에게까지 소급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게된다. 족보 바로 전에 나오는 하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눅 3:22)와 족보에 바로 이어 나오는 시험받으심에서 사탄이 하는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눅 4:3,9)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논의의 촛점이 된다면 족보는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67]

더우기 마태의 족보에는 수많은 왕이 열거되지만 다윗에게만 왕이란 칭호(Δαυὶδ τὸν βασιλέα, 6절)가 덧붙여진 사실은 다윗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려는 또 다른 노력임을 보게 된다.[68]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언급되었고, 다윗의 이름에 왕의 칭호가 덧붙여진 것은 왕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69] 그렇다면 이 족보는 다윗 중심의 족보임이 틀림없다.

이 족보에서 다윗이 부각된 또 다른 내용은 이 족보가 다윗이란 이름이 담고 있는 gematria, 즉 수적인 가치(numerical value)에서 그 절정에 이르는 것이다.[70] 족보의 14대ㅡ14대ㅡ14대의 구분은 히브리어로 다윗이란 이름을 구성하는 세 자음의 수가(數價)가 ד(4)

65) Cf. Oscar Cullmann, Christ and Time: The Primitive Christian Conception of Time and History. tr. Floyd V. Filson (London: SCM Press, 1962. rev.), pp. 110, 111.

66) Strecker, op. cit., pp. 118-20; Werner Georg Kümmel,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tr. John E. Steely (Nashville: Abingdon Press, 1973), p. 73; Leonhard Goppelt,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The Ministry of Jesus in Its Theological Significance. tr. John Alsup (Grand Rapids: Eerdmans,1981), I, p. 168. Cf. Günther Bornkamm, Jesus von Nazareth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1968), pp. 207,8 (Exk. III); A. Suhl, "Der Davidsohn im Matthäus-Evangelium," ZNW 59 (1968), pp. 57-81.

67) 김득중, op. cit., p. 42.

68) Calvin, op. cit., p. 59: "David alone is honoured with this word of distinction, as God set forth in his person the type of the Messiah who would come to rule."

69) Gaebelein, op. cit., p. 14: "Because it is the question of Kingship, 'Son of David' precedes 'Son of Abraham'."

70) Gundry, op. cit., p. 13: "To reinforce the point, Matthew describes Jesus as 'son of David son of Abraham' (Cf. T. Levi 8:14-15). This description shows that the record of origin is limited to the genealogy, which starts with Abraham, gives prominence to David, and climaxes in a gematria on David's name."

+ㄱ(6)+ㅜ(4)= 14를 이루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이다.[71]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그의 약속을 따라 예수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게 하셨다는 뜻이다. 기원전 약 2000년경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3 하).

또 기원전 약 1000년경에 하나님은 다시 다윗왕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 7:12,16).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이루셨다.[72] 이처럼 이 족보는 예수로 하여금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며[73], 메시야가 혈통적으로는 유다지파, 보다 정확히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다는 역사성을 말해 준다.

둘째로, 이 족보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관례를 찾아 볼 수 없는[74] 네 여인, 그것도 유대인들의 기준으로서는 부도덕하기 이를데 없는 이름들을 담고 있는 특징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예수의 족보에는 네 왕을 생략한 반면[75] 유대인들이 수치스럽게 여겨 배척할만한 네 여인들의 이름이 포함된 것과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 베푸시는 자비를 거역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여인들의 이름들이 포함되었다.[76] 여기

71) Allen, op. cit., pp. 6,7; Hill, op. cit., p. 74; 이상근, 신약주해 : 마태복음(서울: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1968, 1980[10]), p. 37 ; Warren W. Wiersbe, Meet Your King: Discover the Excitement of Knowing the King of Glory (Wheaton, ILL: Victor Books, 1980), p. 17.

72) J.L. Leuba, "Note exegetique sur Matthieu 1:1a," Revue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s, 1942, pp. 56ff.

73) 黑崎幸吉原著, 新約聖書 註解, 郭哲榮譯(서울 : 聖書教材刊行社, 1979), 8, p.2.

74) 유대인의 족보는 언제나 부계로 이어지며(대상 1-8), 여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See S.E. Johns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The Interpreter's Bible (Nashville: Abingdon Press, 1951), p. 251. 유대인의 족보에서 여자가 나오는 경우는 여러 아내를 거느린 경우 어느 여자를 통하여 어느 자식을 출산했는지 구분할 때에만 족보에서 여자의 이름이 거론될 뿐이다(대상 3:1 ~ 10 참조).

75) Earle, op. cit., p. 29.

76) 핼스 어드맨著, 朴遜赫譯, 마태복음(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62[6]), p.29.

나오는 네 사람의 여인 중에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이방인이고[77] 두 사람이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특히 우리들의 주의를 끈다.

다말(3절 ; 창 38)은 그녀의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상간의 관계를 가져 불륜의 열매를 맺은 부도덕한 여인[78] 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녀를 예수의 조상의 명단에 들게 하셨다. 다말의 경우 그녀가 욕정에 몰려 그녀의 시아버지와 관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억울함을 푸는데 있어서 그녀는 그릇된 방법을 택하였다. 그리고 유다의 경우 그는 창녀를 찼던 중 자기도 모르게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함께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통치의 선하심은 이들의 죄를 초월하여 이 불의의 씨앗으로 왕의 홀을 차지하게 하셨다.[79] 라합(5절 ; 수 2 ; 히 11:31)은 이방여인이며 창기였으나, 그녀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의 조상의 반렬에 들게 되었다.[80] 룻(5절 ; 룻기)은 모압 여인으로서 신명기 23:3～6에 따르면, 그녀는 10대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81] 예수의 조상의 대열에 들게 되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6절 ; 삼하 11)는 다윗의 경악할 범죄에 가담하여 간음한 여인으로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다윗의 공범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녀를 용서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그녀를 예수의 조상중에 하나가 되게 하셨다.[82]

예수의 족보에 이처럼 부정한 여인들과 이방여인들이 포함된 사실은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있는 육체의 모양"(롬 8:3)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83] 유대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구세주임을 나타낸다.[84]

마태가 이처럼 네 여인의 이름을 족보에 삽입한 목적은 이 여인들이 모두 이방인 또는 이방인과 관련된 여인들이라는 점에서[85] 예수의 탄생이 이방인의 피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하나

---

77) Cf. Infra.

78) 유대교에서는 부도덕한 다말의 事蹟을 기록한 창세기 38장은 공석에서 읽지 말라는 금령이 있을 정도이지만, 다말을 의로운 인물로 그리는 학자도 없지 않다. See 김이곤, "유다의 며느리 '다말' 찬양송-다원화 사회를 향한 공동체 윤리를 변호하며" - 基教督思想 333 (1986.9), pp.147-159.

79) Calvin, op. cit., p. 59.

80) Cf. Gaebelein, op. cit., p. 15.

81) Ibid; W.H. Griffith Thomas, Outline Studies in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1961), p. 22.

82) 黑崎幸吉, op.cit.,p.3.

83) 어드맨, op.cit.,p.29.

84) Gaebelein, op. cit., p. 15.

85) 신약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다말을 가나안 여인으로 보았다. See Johnson, The Purpose of the Biblical Genealogies, pp.270-72 ; 김이곤, op.cit., pp.148 f. 헷장수 우리아의 아내(밧세바)란 명칭도 이방인임을 드러내려고 다른 여인들처럼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불렀다고 본다. See H. Stegemann, "Die des Uria: Zur Bedeutung der Frauennamen in der Genealogie

님은 결국 이방인 혹은 이방인과의 불법적인 결합을 통하여 그의 계획과 언약을 성취하심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즉 이 족보는 이방인 구원의 섭리를 담고 있다.[86]

언뜻 보면 신약성서 첫 페이지는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얼룩진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黑崎幸吉이 말한 것처럼 세가지 깊은 의의가 있다.

> ① 인간의 역사는 그 모든 불결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보여 준다. 즉 동양의 영웅 전기처럼 그 오점은 감추고 미점만을 들어내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쓸데없는 일임을 가리킨다. ② 유대인은 그 혈통을 자랑하고 또 메시야를 자국민(自國民)을 위한 구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가장 존경하는 저들의 메시야의 혈통 가운데도 오점이 있고 또 이방인의 피도 섞여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유대인의 교만을 좌절시키고, ③ 또 인류의 죄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헛되이 돌리지 않고 저들의 죄를 씻어주고 저들을 구원하여 영광스런 자리에 두시어 인류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개권(開券) 첫 머리에 무미건조한 인명의 나열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87]

세째로, 이 족보의 특징은 이름만 열거되는 족보에 지명 "바벨론"이 삽입된 것이다. Krister Stendahl의 중심 논제는 마태복음 제1장은 "예수는 누구인가?(Who (Quis) is Jesus?)에 대한 해답인 반면, 마태복음 제2장은 "어디서?"(Whence (Unde)?)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이다.[88] 그에 따르면 마태복음 제2장은 지역 이름들로 꽉 차있다. 이것은 마태복음 제1장, 특히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는 마태복음 1:18f.에서도 지역 이름이 한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89] 마태복음 1:11, 12, 17에서 쓰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the deportation to Babylon)란 예외적인 표현 뿐인데, 이나마도 "때를 나타내는 명칭"으로(as a temporal designation) 쓰인데 불과하다는 것이다.[90] 족보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자연스럽겠으나 족보에 어울리지 않게 삽입된 지명 바벨론은 Stendahl의 말처럼 때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성서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에게 항거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칭되는 세상적인 힘의 유

---

von Matthäus 1:1-17," Tradition und Glaube, Festgabe K.G. Kuhn, ed. G. Jeremias et a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2), pp. 246-76.

86) 김득중, op. cit., pp. 42, 3; Gundry, op. cit., pp. 14, 15.

87) 黑崎幸吉, op. cit., pp. 4,5.

88) Krister Stendahl, "Quis et Unde? An Analysis of Matthew 1-2," The Interpretation of Matthew, ed. Graham Stanton (London: SPCK;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pp. 56-66.

89) Ibid., p. 57.

90) Ibid., p. 63 n. 10.

형(the type of worldly power)[91] 으로 우상숭배(paganism)의 대명사로 그려진다.[92]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로운 영적인 종족의 아버지로 삼기 위하여 그를 우상숭배의 남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셨다.[93]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을 통하여 찬란한 다윗왕조를 이룩했었으나 다윗의 후손들의 죄망과 더불어 저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감으로써 아브라함의 여로를 back course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모든 약속의 성취로서 구속사를 완성시켰다.[94] 이런 의미에서 이 족보는 다윗왕조의 생성-흥왕-쇠퇴-회복[95]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출바벨론기(出巴比倫記)라고 이름할 수 있겠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노릇을 하다가 종살이와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기자는 말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포로생활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다시 한 백성으로 모이고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해 존속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뛰어난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했음도 말해 주고 있다.[96]

이방여인들이 족보에 포함되어 이방인의 구원을 시사했는가 하면, 이방지명은 이방의 속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이방으로부터 구원한 사실을 말하려고 포함시켰다. 이렇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인 마태복음은[97] 유대주의(Judaism)에 갇혀 있을 수 없고 보편주의(Universalism)로 뻗어 나감을 이 족보는 잘 말해 준다.[98]

끝으로 우리들이 보려는 이 족보의 특징은 외견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내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대인들의 공인된 족보가 기록돼 있는 역대기에 따르면 아들들의 출생순위에 의하여 장차(長次)가 기록되어 있다. 그 원칙을 역대상 5:1-2에서 본다.

91) H. Seebass, "Babylon,"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ed. Colin Brown (Grand Rapids: Zondervan, 1975), I, p. 142.

92). R. Allan Killen and John Rea, "Babylon, Mystery," Wycliffe Bible Encyclopedia. edd. Charles F. Pfeiffer, et al. (Chicago: Moody Press, 1975), I, p. 190.

93) 아브라함의 여로와 설명은 Frank Charles Thompson, The New Chain-Reference Bible (Indianapolis: B.B. Kirkbride Bible Co., Inc., 1964), p. 232 를보라. Cf. Fred E. Young, "Babylon," Wycliffe Bible Encyclopedia. edd. C.F. Pfeiffer, et al. (Chicago:Moody Press, 1975), I, p.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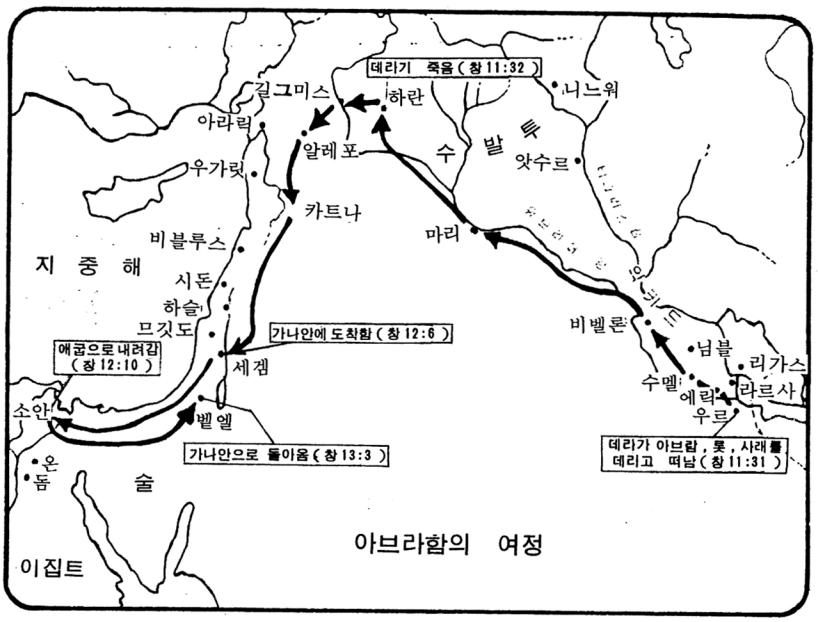
94) Cf. Seebass, op. cit., p. 141.

95) Allen, op. cit., p. 2; Henry, op. cit., p. 5; Bengel, op. cit., pp. 50, 51; Hill, op. cit., p. 75.

96) Calvin, op. cit., p. 60.

97) Earle, op. cit., pp. 21f., 27; William Barclay, The Gospel of Matthew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58^{2}), I, pp. xxii-iv.

98) Cf. James Moffatt,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New Testament (Edinburgh: T. & T. Clark, 1911), p. 244; 이상근, op. cit., p. 30.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 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리라.

이처럼 족보에는 출생의 장차의 순대로 등재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마태의 족보에는 이를 따르지 않는 예를 여럿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창 16:15) 14년만에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으나(창 21:2,3)[99] 이 족보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2절)이 등재된 것은[100]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창 21:12)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처 소생의 맏아들인 이삭이 장자로 간주되는 것은 역대상 1:28,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것과 일치한다.[101]

아버지는 같았지만 어머니는 달랐던 이삭과 이스마엘과는 달리, 같은 어머니에게서 쌍동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스라엘)의 경우 역대상 1:34하는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

99) See John Peter Lange, "Genesi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Grand Rapids: Zondervan, 1960), I, pp. 424f., 456f.

100) Calvin, op. cit., pp. 58, 9.

101) Cf. 역대상 2:42 이하에서도 갈렙의 본처 소생들이 먼저 기록되고 이어서 후처의 소생들이 언급되었다.

이더라"라고 말하는데, 마태의 족보에는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2절)이 등재된 것이다.[102]

그 이유는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하여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반면,에서는 현세에 눈이 어두워 이를 경홀히 여긴 데서 찾을 수 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의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에서의 발뒷굼치를 물었는가 하면,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長子權, birthright)을 탈취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결국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권을 경솔하게 양도하여 야곱은 장자로서의 명분을 얻게 되고, 야곱은 이어 그의 어머니와 결탁하여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이라는 추인을 받아냄으로 그가 애써 얻으려고 노력하던대로 장자권을 완전히 획득하게 되었다.[103]

야곱은 열 두 아들을 낳았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잇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다. 그런데 맏아들 르우벤은 그의 서모 빌하와 통간하므로(창 35:22) 그는 그의 장자권을 잃게 되었다.

장자권이란 세가지 특권, 즉 두배 몫의 유업,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아버지 대신에 가정에 대한 권위(왕의 직분)를 가진다.[104]

박탈 당한 르우벤의 두배 몫의 유산은 요셉에게로 가서,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땅의 분깃을 받았다 (수 16, 17).두 아들을 통하여 요셉은 좋은 땅의 두 몫을 상속 받았다. 르우벤의 제사장 직분의 몫은 레위에게로 갔는데 그 이유는, 레위가 자기 가족을 잊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했기 때문이며, 또 르우벤의 왕의 직분의 몫은 유다에게로 돌아갔다 (창 49:10 ; 대상 5:2).[105]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족보는 장자권을 따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2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의 일곱 형들을 제치고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삼상 16:1-13), 솔로몬의 경우도 같다(대상 28:5)[106] 이처럼 마태의 족보는 출생순위에 따라 맏아들이 된 자라고 할지라도 장자권이 없으면 법률상 장자가 못되는 반면 출생순위에 의하여 맏아들이 아니라고

---

102) Calvin, op. cit., p. 59.

103) 성서에는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서처럼 장자권을 흥정하여 매매한 경우(창 25:31-34), 다음의 르우벤의 경우에서 볼 것처럼, 아버지가 맏아들의 장자권을 박탈하여 다른 아들에게 준 경우(대상 5:1), 할아버지가 맏손자가 아닌 다른 손자에게 장자권을 인정한 경우(창 48:19) 등이 있다.

104) Irvine Robertson, "Firstborn," Wycliffe Bible Encyclopedia. edd. Charles F. Pfeiffer, et al. (Chicago: Moody Press, 1975), I. p. 609: "The firstborn of the father had authority over the family in place of the father (Reuben in Genesis 37:21-30; 42:37), a double share of the inheritance (Deut. 21:17), and the right to the priesthood."

105) See 리, op. cit., p. 33.

106) 왕의 계승은 보통 장자로 이어지도록 고려되는 것이 상례이나 항상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왕상 1:1,5-39 ; 대상 26:10 ; 대하 11:22). I. Robertson, op. cit., p. 610; Lewis and Booth, op. cit., p. 9.

할지라도 장자권을 가졌으면 가장권을 상속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107]

Ⅲ. 맺는 말

마태복음의 족보는 신학적인 족보[108]로서, 우리가 이미 본대로, 이는 어려운 문제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한다. 유대인들은 저들이 적법한 왕과 대제사장을 가질 수 있기 위하여 저들은 완전한 족보, 특히 유다지파의 다윗왕가(王家)와 레위지파의 족보를 잘 보관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저들은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경고했듯이(딤전 1:4; 딛 3:9)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가지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만일 저들이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었다면 마태복음은 벌써 폐책이 되었을 것이다. 저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예수를 헐뜯었으나 족보를 가지고 시비한 적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109]

우리들이 호적등본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듯이 유대인들도 족보가 있어야 진정한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시 했다.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예수의 족보로 시작한 것은 중요한 목적에서 였다고 보여진다. 먼저, 이 족보는 역사적인 목적(historical purpose)을 가진다.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신약에서 성취하시는 것을 보이며, 구약과 신약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1절)의 몸을 입고 적법한 메시야 왕(Messiah-King)으로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110]

또 이 족보는 신학적인 목적(theological purpose)을 가진다. "자기 백성을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마 1:21)인 예수는 인류를 구원할 구주(the Saviour of the world)임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는 성자와 죄인, 남자와 여자, 군왕과 상민,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예수와 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여기서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1절)의 몸을 입고 오심은 그의 씨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창 12:3)과 관련이 있

107) 金性祉, 舊約家族法(서울 : 崇實大學校 出版部, 1989), pp.295f.

108) Robert C. Walton, A Basic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London: SCM Press, 1970), p. 91.

109) Poole, op. cit., p. 2; Jamieson, et al., op. cit., p. 2.

110) Cf. Charles Caldwell Ryrie, Biblical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Moody Press,1959) p. 41.

음을 보인다.[111] 그러므로 이 족보는 유대적이지만 범세계성을 지니고, 왕족의 족보이지만 특권 사상이 아니라 무차별 평등사상을 담고 있다.

이런 목적을 분명히 이해할 때 마태의 족보를, 三浦陵子처럼, "이제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112]

111) Ibid.

112) 三浦陵子, op.cit., p.17 : "그런데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지금은 다르다. 즉, 나는 이제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흥미진진하게 이 계보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Cf. Supra n.1 ; 이상근, op.cit., p.44는 족보만 읽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Bibliography

Abel, E.L. "The Genealogies of Jesus O ΧΡΙΣΤΟΣ," NTS, 20 (1973-4).

Aland, Kurt, Matthew Black, Carlo M. Martini, Bruce M. Metzger, and Allend Wikgren, edd. The Greek New Testament (London,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75^3).

Albright, Wm. F. and C.S. Mann, Matthew. edd. W.F. Albright and David Noel Freedman.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 Co., 1982).

Allen, Willoughby C.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 Matthew.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977^3).

Bacon, B.W. "Genealogy of Jesus Christ,"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ed. James Hastings (Edinburgh: T. & T. Clark, 1963).

Barclay, William. The Gospel of Matthew. The Daily Study Bible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58^2), I.

Barker, P.C. "I Chronicles," The Pulpit Commentary. ed. H.D.M. Spence (Grand Rapids: Eerdmans, 1950), VI.

Bengel, Johann Albrecht. Gnomon Novi Testamenti. Bengel's New Testament Commentary. trs. Charlton Lewis and Marvin Vincent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1), I.

Bornkamm, Günther, Jesus von Nazareth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1968^8).

Bowman, R.A. "Genealogy,"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ed. George Arthur Buttrick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II.

Bruce, Alexander Balmain.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ed. W. Robertson Nicoll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0), I.

Bruce, F.F.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New Bible Dictionary, ed. J.D. Douglas (Grand Rapids: Eerdmans, 1962).

Calvin, John.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edd.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tr. A.W. Morris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72) I.

Cullmann, Oscar. Christ and Time: The Primitive Conception of Time and History. tr. Floyd V. Filson (London: SCM Press, 1962 rev.).

The Christology of the New Testament. trs. Shirley C. Guthrie and Charles A.M. Hall (London: SCM Press, 1963^2).

Delitzsch, Franz. tr. Hebrew New Testament (London: Trinitarian Bible Society, 1960).

Earle, Ralph. "Matthew, " Beacon Bible Commentary (Kansas City, MO: Beacon Hill Press, 1964), VI.

Ellis, E. Earle. The Gospel of Luke. New Century Bible (London: Oliphants, 1974 rev.).

Elmslie, W.A.L. "The First and Second Books of Chronicles," The Interpreter's Bible. ed. George Arthur Buttrick (Nashville: Abingdon Press, 1954), III.

Gaebelein, A.C. The Annotated Bible: The Holy Scriptures Analysed and Annatoted (Glasgow: Pickering and Inglis, 1931).

Goppelt, Leonhard.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The Ministry of Jesus in Its Theological Significance. tr. John Alsup (Grand Rapids: Eerdmans, 1981), I.

Gundry, Robert. Matthew: A Commentary on His Literary and Theological Art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2).

Hendriksen, William.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3).

Henry, Matthew.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New York: Fleming H. Revell, n.d.).

Hill, David. The Gospel of Matthew. New Century Bible (London: Oliphants, 1972).

Hillyer, N. "The Genealogies of Jesus Christ,"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ed. Colin Brown (Grand Rapids: Zondervan, 1978), III.

Hoehner, Harold W. "Genealogy," Wycliffe Bible Encyclopedia. edd. Charles F. Pfeiffer, Howard F. Vos and John Rea (Chicago: Moody Press, 1975), I.

Jamieson, Robert, A.R. Fausset and David Brown. A Commentary Critical, Experimental and Practical on the Old and New Testaments (Grand Rapids: Zondervan, 1948), V.

Johnson, Marshall D. The Purpose of the Biblical Genealogies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etting of the Genealogies of Jes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Johnson, S.E.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The Interpreter's Bible. ed. G.A. Buttrick (Nashville: Abingdon Press, 1951).

Killen, R. Allan and John Rea. "Babylon, Mystery," Wycliffe Bible Encyclopedia. edd. Charles F. Pfeiffer, et al (Chicago: Moody Press, 1975), I.

Kingsbury, Jack Dean. Matthew: Structure, Christology, Kingdo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Kittel, Rudolf. ed. Biblica Hebraica (Stuttgart: Privileg. Württ. Bibelanstalt, 1962).

Kümmel, Werner Georg.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tr. John E. Steely (Nashville: Abingdon Press, 1973).

Lange, John Peter. "Genesi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Grand Rapids: Zondervan, 1960), I.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tr. & ed. Philip Schaff (Grand Rapids: Zondervan, 1980), VIII.

Leuba, J.L. "Note exegetique sur Matthieu 1:1a," Revue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s, 1942, pp. 56ff.

Lewis, W. Sunderland and Henry M. Booth. The Preacher's Complete Homiletic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Machen, J. Gresham. The Virgin Birth of Christ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30).

Marshall, I. Howard. Commentary on Luk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78).

Metzger, Bruce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London,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71^{3}).

M'Neile, Alan H.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London: Macmillan & Co., 1915).

Poole, Matthew. A Commentary on the Holy Bible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685, 1969 rep.), III.

Rahlfs, Alfred. ed. Septuaginta, id est Vestus Testamentum Graece Iuxta LXX Interpretes. 2 Vols. (Stuttgart: Privileg. Württ. Bibelanstalt, 1952^{5}).

Renwick, A.M. The Story of the Church (London: Inter-Varsity Press, 1971).

Robertson, Archibald Thomas.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Nashville: Broadman Press, 1930), I.

Robertson, Irvine. "Firstborn," Wycliffe Bible Encyclopaedia. edd. Charles F. Pfeiffer, et al. (Chicago: Moody Press, 1975), I.

Schumacher, H. "The Omission of the Three Kings in St. Matthew's Genealogy (Mt. 1, 8)," Homiletic and Pastoral Review XXII (1922), pp. 1194-1203.

Schweizer, Eduard.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Das Neue Testament Deut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6).

Seebass, H. "Babylon,"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ed. Colin Brown (Grand Rapids: Zondervan, 1975), I.

Stegemann, H. "Die des Uria: Zur Bedeutung der Frauennamen in der Genealogie von Matthäus 1:1-17," Tradition und Glaube, Festgabe K.G. Kuhn. ed. G. Jeremias et a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2).

Stendahl, Krister. "Quis et Unde? An Analysis of Matthew 1-2," The Interpretation of Matthew. ed. Graham Stanton (London: SPCK;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Strecker, Georg. Der Weg der Gerechtigkeit: Untersuchung zur Theologie des Matthä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1^{3}).

Suhl, A. "Der Davidsohn im Matthäus-Evangelium," ZNW 59 (1968), pp. 57-81.

Sweet, Lewis Matthew.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ed. James Orr (Grand Rapids: Eerdmans, 1955), II.

Thomas, W.H. Griffith. Outline Studies in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1961).

Throckmorton, Jr., B.H. "Genealogy (Christ),"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ed. George Arthur Buttrick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II.

Thynne, Chas. J. and Jarvi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London: Chas. J. Thynne & Jarvis, Ltd., n.d.).

Walton, Robert C. A Basic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London: SCM Press, 1970).

Wiersbe, Warren W. Meet Your King: Discover the Excitement of Knowing the King of Glory (Wheaton, ILL: Victor Books, 1980).

Williams, A. Lukyn. "St. Matthew," The Pulpit Commentary. edd. H.D.M. Spence and Joseph S. Exell (Grand Rapids: Eerdmans, 1950), XV.

Wood, Fred M. "Live All the Days of Your Life," The Zondervan 1987 Pastors Annual. ed. T.T. Crabtree. Ministry Reources Libr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Young, Fred E. "Babylon," Wycliffe Bible Encyclopedia, edd. Charles F. Pfeiffer, et al. (Chicago: Moody Press, 1975), I.

김득중, 마태복음(서울 : 성서교재 간행사, 1987).

金性叔, 舊約家族法(서울 : 崇實大學校出版部, 1989).

김이곤, "유다의 며느리 '다말' 찬양송-다원화 사회를 향한 공동체 윤리를 변호하며-"基督教思想 333 (1986.9), pp.147 - 159.

대한성서공회 발행, 공동번역성서(외경포함)(서울 : 대한성서공회, 1977,1983[29])

관주성경전서(개역한글판)(서울 : 대한성서공회, 1986[2])

신약전서(새번역)(서울 : 대한성서공회, 1973).

리, 윗트니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서울 : 한국복음서원, 1988).

三浦綾子著. 金燦國譯. 신약성서입문 : 좁은문을 향하여(서울 : 三民社, 1978 , 1988 중판).

선종완, "카논의 정의," 성서와 함께(서울 :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1987).

어드맨, 찰스著. 朴遜赫譯. 마태복음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62[6]).

이상근, 신약주해 : 마태복음(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1968,1980[10]).

韓重植, 基督教의 理解(서울 : 崇實大學校出版部, 1989).

黑崎幸吉原著. 新約聖書註解. 郭哲榮譯(서울 : 聖書教材刊行社, 1979), 8.

ABSTRACT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Mt. 1:1 ~ 17–

Han, Joong-Sik

In this paper we have found the following things.

Matthew wrote his Gospel especially for the Jews. It is very natural, therefore, that it should begin with a genealogy. Obviously, Jesus, would not be accepted as the Jewish Messiah unless it could be proved by the genealogical records that He was the son of David, for the Jews believed that their Messiah would come from the royal line of Israel's greatest King David.

Thus the genealogy has twofold purposes. First, it has a historical purpose. It aims at exhibiting Jesus as the Messiah of prophecy, the king of Israel who is come to set up the Kingdom of heaven. Much prominence is, therefore, given to fulfillments of Old Testament predictions. The genealogy is given to show that Jesus is a son of David. Jesus is presented to the Jews not only as their Messiah, but as their King. At the very beginning the genealogy gives the royal line, proving Jesus' right to the throne of David.

Second, it has a theological purpose. God has promised Abraham that in him should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 and here we see of its fulfillment. Jesus touched all sorts of people in this genealogy, in order that He might save all sorts of people. In other words, the salvation of Gentiles is implicit in this genealogy.